

중화세계질서 이념의 탄생에 대하여

李春植*

<목 차>

머 리 말

1. 은·주 왕조의 이중구조와 성격
2. 은·주 왕조 통치이념의 본질
 - 1) 정문(貞問)과 은왕의 카리스마
 - 2) 천명(天命)사상과 주왕의 카리스마
3. 은·주시대 세계관의 형성과 성격
4. 유학 경전(經典) 속의 세계관과 화이(華夷)
맺 는 말

머 리 말

동·서의 세계사 속에서 막강한 정치·경제·군사력과 선진문화를 기반으로 세계질서를 수립하였던 경우를 보면 오리엔트 지역의 페르시아 제국, 유럽의 로마제국, 중동지역의 이슬람제국 그리고 고대 오리엔트세계, 고대 지중해세계, 중세유럽의 기독교세계, 중세 중동의 이슬람세계 등을 들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이 같은 세계질서가 중국을 중심으로 수차 실현되었는데 이것이 중화세계질서(中華世界秩序; The Chinese World Order)의 수립이었다. 1차 중화세계질서의 수립은 양한시대(前漢; 206 B. C.-5, 後漢; 25-220)에 수립되었다. 이 당시 양한제국은 강력한 군사력, 방대한 경제력, 고도의 선진문물을 배경으로 주변의 국가와 부족들에게 중국식의 왕(王), 후

* 高麗大學校 東洋史學科 教授.

(侯), 군(君) 등의 관작을 수여해 책봉(冊封)관계를 수립하고 외번(外蕃)·외신(外臣)으로 포섭하여 복속시켰다. 여기에서 동아시아에는 한 제국 천자를 정점으로 한 제국을 내번으로 주변국을 외번으로 하는 중화세계질서가 수립되었다.

2차의 중화세계질서의 수립은 수당(隋; 581-606, 唐; 618-907)시대였다. 특히 당 제국은 북방의 동돌궐을 정벌하고 다시 서역제국과 서돌궐을 점령하였으며 동쪽의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동남아시아 지역을 장악하였다. 당 제국은 이 같은 정복지에 안동·안북·선우·북정·안서·안남의 6개 도호부를 설치하여 통치하고 그 외의 주변국과는 책봉관계를 수립하였다.

또 당시 당 제국은 동아시아 최고의 선진문화를 이룩하였으므로 수도 장안은 서방의 콘스탄티노플, 바그다드와 더불어 세계 최대의 문화중심지로 발달하였다. 그리하여 페르시아, 사라센, 중앙아시아제국, 발해, 신라, 일본, 동남아시아제국 등지에서 조공사, 상인, 유학생, 구법승, 여행자들이 몰려들었으며 모두 당 문화를 수렴하였다. 여기에서 동아시아에는 당 제국을 중심으로 주변국간에는 책봉관계에 의한 종주(宗主)·종속(從屬)관계가 성립되어 당 제국을 중심으로 중화세계질서가 형성되었다.

3차의 중화세계질서의 수립은 청(淸; 1616-1912) 제국시대였다. 청 제국은 중국본부와 만주 이외에 대만, 내외몽고, 신강, 서장을 직접 통치하였으며 조선, 일본, 유구, 삼 등의 30여 국은 청황제의 책봉을 받아 조공하였다. 또 청대에는 중국문화가 크게 발달하였으므로 수도 북경은 동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 그 영광을 자랑하고 주변 각국은 이 같은 선진문화를 적극 수입하였다. 여기에서 동아시아에는 청 제국을 중심으로 정치·문화적으로 하나의 세계를 이룩하였는데, 이것이 3차의 중화세계질서 수립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에서 수차 수립된 중화세계질서의 구조와 성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중국천자의 주변국 군주에 대한 봉책제수(封冊除授)

와 주변국 군주의 중국천자에 대한 봉표칭신(奉表稱臣)의 종주(宗主)·종속(從屬) 관계로 이루어졌다. 물론 이 같은 종속관계는 본질적으로 지배·피지배의 관계는 아니었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가 하나의 느슨한 정치·문화적 통일세계를 이루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이것이 바로 중화세계질서의 수립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같이 수차 수립된 중화세계질서 수립의 이념이 어느 시기에 형성되고 후대에 어떻게 정치·군사적 실천의 이념적 원동력이 되었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1. 은·주 왕조의 2중구조와 성격

기원전 2300여 년을 전후로 발달하기 시작한 용산문화는 묘저구(廟底溝) 제2기 문화를 비롯하여 후광(後崗) 제2기 문화, 객성장(客省莊) 제2기 문화 그리고 산동성의 성자애(城子崖) 문화를 차례로 발달시켰다.¹⁾ 이 같은 용산문화의 발달과 확대는 광대한 중원을 농경지로 변모시켰는데²⁾ 광대한 중원의 농경화는 필연적으로 중원 각지에 무수한 도시의 발달을 촉진하였는데 이것이 방(邦)·읍(邑)·국(國)의 출현이었다.

방·읍·국의 성격을 살펴보면 정치적으로는 군장(君長) 또는 대인(大人)의 강력한 영도하에 있는 독립집단이었으며 경제적으로는 농경을 기반으로 한 자급자족 집단이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자위능력을 갖춘 무장집단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방·읍·국은 모두 성읍국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시일의 경과와 함께 성읍국가 사이에는 정치·군

1) K. C. Chang, *The Archaeology of Ancient China*, New He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7, pp. 157~172.

2) 위 책, p. 151.

사적 해계모니 장악과 토지확보, 치수사업 등을 중심한 경제적 이해관계로 상호 충돌 대립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정치·군사·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된 성읍들이 유력 읍을 중심으로 연맹(聯盟)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는데³⁾ 중국에서 최초의 왕조였던 은 왕조도 이 같은 방·읍·국 사이에 형성된 연맹을 기반으로 성립하였다.

은대 이성부족과의 연맹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성탕(成湯)시기에 유신(有莘)·팽(彭)·이(夷)·효(爻)·상(相)·정(井)씨 등의 여러 부족들과 연맹을 형성하였으며⁴⁾ 『복사』중에는 몽후호(蒙侯虎)·유후희(攸侯喜)·기자숙(企子肅) 등의 족명(族名)이 보이고 있다. 또 다른 『복사』에 의하면 연맹부족들이 은왕에 대해 ‘씨(氏)’ ‘채(采)’ ‘각갑(角甲)’ ‘수골(獸骨)’ ‘목축(牧畜)’ ‘인성(人牲)’ ‘노예(奴隸)’ 등의 공물을 빈번히 헌상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다른 기록에는 공납하였던 국명과 족명이 90개 이상 기록되어 있는데⁵⁾ 이 같은 사실은 은 왕조가 은족을 중심으로 다수의 방·읍·국의 성읍국가들과 연맹을 형성하였음을 말하고 있다.⁶⁾

이와 같이 수많은 방·읍·국들의 연맹으로 조직된 은 왕조의 국가구조를 살펴보면 은왕이 거주하고 있는 상읍(商邑)을 중심으로 내복(內服)과 외복(外服)의 이중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복지역은 은왕이 거주하는 상읍과 교외 및 그 주변지역을 말하는데 이 교외지역에는 은왕의 수렵지가 있고 또 은 왕조 지배계층의 중핵을 이루고 있는 왕족(王族)과 다자족(多子族)을 포함한 은의 여러 씨족의 성읍이 전략적 요충지에 따라 포진하고 있었다.

은대의 자료에 의하면 내복지역은 은왕이 임명한 내복관료에 의해 통치되었던 같다. 『상서』, 「소고편(召誥編)」과 「주고편(酒誥編)」에는 서운(庶

3) 晁福林, 「殷墟卜辭中的商王名號 商代王權」, 『歷史研究』 5, 1986, p. 47.

4) 晁福林, 「從方國聯盟發展看殷都遷遷原因」, 『北京師範大學學報』, 사과판 1, 1985, p. 4.

5) 齊文心, 「關於商代稱王的封國君長的深討」, 『歷史研究』(京), 1985, p. 37.

6) 위 논문, p. 37.

尹), 아(亞), 복(服), 종공(宗工) 등의 관료를 두어 통치하였다는 기록이 있고⁷⁾ 『복사(卜辭)』에는 내복관료의 명칭으로 다아(多亞), 다신(多臣), 다윤(多尹)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같은 『복사』의 기록은 『상서』에 기록되어 있는 “백료(百僚), 서윤(庶尹), 아(亞), 복(服), 종공(宗工), 리거(里居)” 등의 기록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⁸⁾ 이런 점에서 볼 때 내복지역은 은왕이 내복관료를 통해 직접 지배하였던 같다.

외복(外服)지역은 은왕실을 중심으로 군사적 공수동맹을 형성한 이성의 연맹방읍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외복제후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상서』의 「소고편(召誥編)」에는 후(侯), 전(甸), 남(男)의 제후들,⁹⁾ 「주고편(酒誥編)」에는 위(衛)를 더하여 후, 전, 남, 위의 제후들이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¹⁰⁾ 복사(卜辭)에서도 공(公), 남(男), 후(侯), 전(田), 위(衛), 백(伯), 자(子) 등이 검출되고 있는데 이것은 은대의 외복지역은 후, 전, 남 등의 제후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들 연맹의 방·읍·국은 강력한 군장의 영도하에 있는 정치·군사적 독립집단이었으므로 외복제후들은 자신들의 성읍에 대한 통치는 직접 장악하고 조공(朝貢)을 통해 간접으로 은왕에 복속하고 있었다.

또 은왕조를 멸하고 개국하였던 주왕실은 통치제도의 근간으로 봉건제도를 실시하였다. 봉건제도의 실시에 의해 수많은 제후국이 건설되었는데 이 봉건제도 역시 내복지역과 외복지역으로 조직되었다. 내복지역에는 주왕이 백료(百僚), 서윤(庶尹), 유아(惟亞), 종공(宗工) 등의 내복관료를 임명하여 직접 통치하였으며 외복지역은 전복(田服), 후복(侯服), 위복(衛服) 등의 제후들이 분봉되었는데¹¹⁾ 이들 외복제후들은 은대와 마찬가지로 자국에 대한 통치는 직접 장악하고 조공을 통해 주왕에게 간접으로 복속하

7) 『尙書注疏及補正』, 臺北: 世界書局, 14: 25b.

8) 島邦南, 『殷墟卜辭研究』, 弘前大學文理學部 中國研究會, 1958, p. 463.

9) 『尙書注疏及補正』, 14: 28b.

10) 위 책, 14: 25b.

11) 위 책, 14: 25a.

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은·주왕조의 국가조직은 모두 각기 왕을 정점으로 내복과 외복의 이중으로 조직되어 있고 내복지역은 은·주왕의 직접 통치지역이었고 외복지역은 간접통치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주 왕실은 정치·군사·경제적으로 독립적이었던 이들 외복제후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통치이념이 필요하였다.

2. 은·주 왕조 통치이념의 본질

1) 정문(貞問)과 은왕의 카리스마

중국에서 특정 신의 카리스마에 의탁한 정치형태는 바로 은(殷)왕조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은 왕조의 통치제도를 살펴보면 은왕을 정점으로 맺어진 군사적 공수동맹(攻守同盟)을 기반으로 형성된 강력한 무력 위에 제사(祭祀)와 정문(貞問)을 통한 신정(神政)정치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사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대에 숭신(崇信)되었던 신(神)들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은대에는 최고신이었던 상제(上帝)를 정점으로 수많은 자연신과 조상신으로 구성되었다. 상제는 우주삼라만상을 창조한 창조주였으며 자연현상과 인간사의 모든 것을 관장하였던 전지전능의 최고의 신이었으며 동시에 은족의 수호신이었다.

자연신은 자연을 신격화한 것인데 이 자연신은 하신(河神), 수신(水神), 운신(雲神), 설신(雪神), 토신(土神)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신 중에서 하신(河神)은 농사의 길흉을 장악하고 수신(水神)은 홍수와 수해를 일으키고 산신(山神)은 비를 내리게 하고 토신(土神)은 비와 바람 그리고 농사의 길흉을 좌우하고 운신(雲神)과 설신(雪神) 역시 비를 내리는 권능을 가졌던 것으로 인식되었다. 조상신은 은왕실 역대의 선공(先公), 선왕(先王),

선신(先臣)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선공은 왕조가 성립되기 이전의 먼 조상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농사의 풍·흉에 영향력을 갖고 있고 또 자손들의 번영을 도와준다고 믿었다.

이와 같이 은대에는 최고신이었던 상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권능을 가진 신들이 존재하였는데 은왕실은 이들 신들에 대한 제사를 중앙과 지방에서 범국가적 행사로 성대하게 대규모로 거행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숭신되었던 신들의 출신성분과 배경을 살펴보면 전부가 은족의 신만은 아니었다. 자연신 중에서 하신은 하족(河族)의 족신(族神)으로 간주되고 악신은 악족(嶽族)의 족신으로 생각된다.¹²⁾ 또 조상신 중에서 왕해(王亥)는 곤씨족(困氏族)의 신이었으며, 풍족의 기(夔) 등은 타부족의 족신이였다.¹³⁾ 또 탕왕(湯王)을 도와 은왕조 개국에 공이 컸던 윤이(伊尹), 대무(大戊) 시대의 현신이었던 무함(巫咸), 대갑(大甲) 때의 보형(保衡), 반경(盤庚) 때의 지임(遲任), 무정(武丁) 때의 감반(甘盤) 등 현신(賢臣)들의 조상신들은 모두 은족 출신이 아니었다.¹⁴⁾ 이와 같이 은대에 숭신되었던 자연신과 조상신 중에는 타부족의 족신(族神)이 은족의 최고신과 함께 배제(配祭)되어 거국적으로 숭배되었는데 여기에는 깊은 정치적 이유가 있다.

대개 국가성립 이전의 상고시대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이들 신들은 지상의 정치를 직접 관장하고 대리인을 파견하여 정치를 대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상고시대에는 이 같은 신들을 배경으로 한 신정(神政) 또는 신권(神權)정치가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를 신탁(神託)통치라고 하였다. 기원전 3000여 년 전의 중동의 도시국가 시대를 살펴보면 당시 도시국가는 각기의 수호신(守護神)을 모시고 있었다. 도시국가는 이 수호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12) 尹乃鈺, 『商王朝史의 研究』, 京仁文化社, 1978, p. 117.

13) 위 책, pp. 207~211.

14) 晁福林, 『殷墟卜辭中的商王名號與商代王權』, 『歷史研究』(京) 2, 1978, p. 43.

도시국가의 정치·군사적 수장(首長)은 이 같은 수호신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정치를 행하는 지상의 대리자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도시간의 전쟁은 이 수호신 사이의 전쟁이었으며 전쟁과 휴전 등의 협정도 수호신의 이름으로 추진되었는데¹⁵⁾ 이 같은 현상은 고대 중국에서도 진행되었다.

은 왕조 성립 이전의 상고시대 각 부족은 각기의 족신(族神)을 숭배하고 있었으며 부족간의 전쟁은 족신간의 전쟁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전쟁에 패배하면 그것은 족신의 패배였으며 전쟁에 패배한 족신은 전승족의 족신에 복속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는데¹⁶⁾ 이 같은 현상은 은 왕조 시대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은 왕조의 제사를 보면 최고신이었던 상제를 정점으로 자연신과 조상신이 차등적으로 위치해 있는데 이것은 패배한 약소부족의 족신이 전승족의 족신인 상제에게 복속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였다.¹⁷⁾ 그리고 은 왕조의 약소 연맹부족이 은 왕의 헤게모니를 인정하고 조공을 통해 복속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은족의 수호신 상제에 대한 연맹부족 족신들의 차등적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은 왕은 이 같은 신의(神意)를 세속사회에 전달하고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¹⁸⁾ 그것이 바로 은 왕조의 신정(神政)정치였다.

그러므로 갑골문의 기록을 보면 은대 왕명(王名)의 십간(十干)과 날짜를 표시하는 십간과 일치하고 있고 제일(祭日)과 왕명(王名)과 일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새가 태양과 은 왕간의 사자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이 같은 사실은 은 왕의 특수임무와 신성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은 왕은 국가의 제사를 주관하였던 최고의 제사장(祭司長)이었고 최고정책기관이었던 정인(貞人)집단의 수장으로 점복을 주관하는 최고의 신관

15) 『아시아歴史事典』, 동경:명범사, 1985, pp. 43~44.

16) 伊藤道治, 『中國古代王朝의 形成』, 東京: 創文社, p. 64.

17) 위 책, p. 64-68.

18) 赤塚忠, 『中國古代의 宗教와 文化-殷 王朝의 祭祀-』, 東京: 角川書店, p. 481.

(神官)이었다.

이와 같이 최고의 신관이었던 은왕은 신의 뜻을 정문(貞問)을 통해서 받았다. 정문은 정인(貞人, 神官)들이 구갑(龜甲) 또는 소뼈 같은 수골(獸骨)을 태워서 거기에 나타나는 조문(兆文) 또는 복문(卜文)을 통해 신의(神意)를 계시받는 행사였다. 정인들은 정문을 통해 받은 신의(神意)를 은왕에게 보고하면 은왕은 이같이 보고된 신의에 따라 정치를 행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정문은 신이 인간에게 그 뜻을 전달하는 통교(通交)수단이었고¹⁹⁾ 은왕은 신의 뜻을 지상에 전하고 실천하는 신의 대리자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점복(占卜)을 통해 신의(神意)가 은왕에게 계시되고 계시된 신의가 은왕을 통해 세속사회에서 실천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이 계시된 신의가 세속사회에서 은왕을 통해 실천된다고 하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은왕을 신성화하는 것이고 은왕 통치의 정통성을 증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이었다.²⁰⁾ 그리고 이를 통해 연맹부족의 제후·제백들을 이념적으로 복속시켜 은왕 통치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이 같이 특정 신의 카리스마에 의탁한 통치형태는 다음의 주 왕조에도 계속되었다.

2) 천명(天命)사상과 주왕의 카리스마

주 왕조의 통치이념은 천명(天命)사상을 기반으로 하였다. 천명사상은 천(天)과 명(命)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천'에 대해서 살펴보면 천은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한 조물주, 천지자연의 법칙을 운행하고 인간사를 감시하며 천벌(天罰)을 내리는 불가항력의 존재, 그리고 천명을 내리는 절대적 신이었으며 동시에 주족의 조상신이였다.²¹⁾ 또 '명(命)에 대해서 살펴

19) 具塚茂樹, 『古代 殷帝國』, 東京:スズオ書房, 1967, p. 229.

20) 위 책, p. 229.

보면 원래 '명'은 천의(天意) 또는 천지(天志)가 자연현상 또는 인간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궁극적 과정을 의미했다.²¹⁾ 그런데 주대의 기록에 의하면 주가 하늘로부터 이 같은 천명을 받았다고 서술하고 있다.

천명에 관한 주대의 기록을 보면 은유민의 반란을 진압하고 이를 회유하고 무마하는 연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소국 주(周)가 대국 은(殷)을 멸망시킨 것은 은의 탕왕이 천명을 받아 실덕한 하 왕조를 멸망시키고 은을 개국한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의 주는 하늘의 도움으로 은왕을 벌하고 하늘의 뜻대로 은의 명(命)을 마치게 하였다.” “소국 주(周)가 대국 은(殷)을 정벌한 것은 단순한 무력적 행사가 아니고 천의(天意)를 반영한 것이다” 등의 내용인데 이와 같은 내용은 모두 주의 은 왕조에 대한 무력정벌을 합리화하고 주 통치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천명사상은 주의 은 왕조에 대한 무력정벌과 통치를 정당화시키고 이를 통해 은 유민을 포섭·회유하려고 했던 고도의 정략(政略)에서 연유한 것으로 생각된다.²²⁾

또 주대의 자료에 보면 주왕실은 주왕 이외에 천자(天子; The Son of Heaven)라는 새로운 군주의 존호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늘은 우주삼라만상의 조물주였을 뿐만 아니라 주족(周族)의 조상신이었다.²³⁾ 그러므로 주왕실은 천상의 통치자 하늘과 지상의 통치자 주왕을 의제적 부자관계로 설정하여 주왕을 하늘의 직계자손인 천자(天子)로 승화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천자의 명칭은 은대의 자료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은대의 최고신은 상제(上帝) 혹은 제(帝)였는데 지상의 통치자 은왕과의 어떠한 의제

21) 郭沫若, 「天의 思想」, 『東洋思潮』, 東京: 岩波書店, 1935, p. 36-37. 梁啓超, 『先秦政治思想史』, 「天道思想」 참조.

22) 李愛熙, 「宋代之 天命觀에 관하여」, 『人文研究』 제19집, 1984, p. 54.

23) H. G. Creel, *The Birth of China*, New York: Reynal and Hichcock, 1937, p. 371.

24) H. G. Creel, *The Origins of Statecraft in China*, Vol.1,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p. 502.

적 부자관계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은왕을 그냥 왕(王)이라고 하였다.²⁵⁾ 그런데 주왕실이 이렇게 주왕을 하늘의 아들 천자로 승화시킨 것은 당연히 우주삼라만상의 창조주였던 하늘의 카리스마를 이용하여 주왕 통치의 신성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천명사상은 또 주 통치의 유일성(唯一性)을 제공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왕은 천명을 받은 수명의 군주였고 동시에 하늘의 아들 천자였다. 그리고 천명을 지상에서 실천하는 유일무이한 봉행자(奉行者)였는데 이 같은 이념은 사실상 주 통치의 유일성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²⁶⁾ 이와 같이 주왕실은 천명사상의 창출을 통해 주의 은 왕조에 대한 무력정벌을 합리화하고 동시에 주 통치의 정통성·신성성 그리고 유일성을 이념적으로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은·주시대의 통치이념은 특정 신의 카리스마에 의탁한 신정(神政, Theocracy) 형태였다. 은왕은 정문(貞問)을 통해 계시된 신의 뜻을 지상에서 실천하는 신의 대리자였으며 주왕은 천자로서 천명을 지상에서 실천하는 천명의 봉행자였기 때문에 지상에서 유일무이한 통치자였다. 따라서 은왕, 주왕의 통치영역은 특정지역에 국한되거나 한정될 수 없었으며 당시의 인식된 세계 전체가 이들 신탁자(神託者)들의 통치영역이었다. 여기에서 이념적으로 전세계는 은왕, 주왕의 통치영역으로 설정되었으며 신의 대리자 또는 천명의 봉행자를 정점으로 하는 하나의 세계관이 형성하게 되었다.

25) 陳夢家는 殷代の 上帝와 지상의 王 사이에는 父子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따라서 天子의 명칭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殷墟卜辭綜述, p. 581). 이에 따라 H. G. Creel은 '天子'의 용어는 주대 周王의 神聖性を 높이기 위해 창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The Origins of Statecraft in China*, Vol. p. 214).

26) 李春植, 「儒家政治思想의 理想的 帝國主義」, 『人文論叢』 제27집, 1982, p. 97. 周代의 政治思想을 그대로 전승하였던 儒家의 『禮記』를 보면 “孔子曰 天無二日, 土無二王.” 『孟子』에서도 “孔子曰 天無二日, 民無二王”라 하여 周統治의 唯一性을 천명하고 있다.

3. 은·주시대 세계관의 형성과 성격

은대 갑골문에 보면 “천읍상(天邑商)” “대읍상(大邑商)”의 기록이 있는데²⁷⁾ 그 의미를 살펴보면 H. G. Creel은 “천읍(天邑)”과 “대읍(大邑)”에서 ‘천(天)’과 ‘대(大)’는 같은 의미로 ‘위대한’ ‘신성한’ 뜻이라고 하였다.²⁸⁾ 이 같은 의미에서 보면 상읍은 “위대한 읍” “신성한 읍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상서(尙書)』 『다사편(多士編)』을 보면 주공(周公)이 성주(成周)를 신축한 후에 은 왕조의 구관료들에게 훈계의 연설을 행했는데 이 연설 속에

내 감히 하늘이 내린 도움 상읍에서 그대들을 찾을 것이다.

의 구절이 나오고 있다.²⁹⁾ 이 문 중에 보이는 “천읍상”에 대해서 정현(鄭玄)은 “천읍은 상읍을 의미하고 본래 하늘이 세운 도시”라고 설명하고 있다. James Legge는 “은왕의 거주지”이기 때문이라 하고³⁰⁾ 『후한서』 『마융전(馬融傳)』에서는 “천하의 중앙에 있는 읍”이라 하고 후에 그 뜻이 변하여 경사(京師)를 의미한다고 하였다.³¹⁾ 이 같은 해석에 의하면 “천읍상(天邑商)” “대읍상(大邑商)”의 의미는 ‘하늘이 건립한 읍’, 세계의 중앙에 위치한 읍’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상읍(商邑)을 천읍(天邑) 또는 대읍(大邑)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점복을 통해 계시된 신의(神意)를 지상에서 실천하는 신의 대리자 은왕의 주재하는 신성한 지역이었으므로 천읍 또는 대읍으로 불렀다고 할 수 있다.

27) 羅振玉 編, 『殷墟書契』前篇, 1912, p. 2, 3, 7.

28) H. G. Creel, 위 책, pp. 497~499.

29) 『尙書注疏及補正』, 16:2a, 肆予敢求 爾于天邑商.

30) James Legge, *The Shoo king or The Book of Historical Documents*, p. 460.

31) 『後漢書』, 景仁文化社 編, p. 1956.

또 은대에는 상읍을 중방(中方)·중읍(中邑)·중국(中國)이라고 불렀다.³²⁾ 이 중방·중읍이었던 상읍을 중심으로 주변에 수많은 대소의 읍·방·국들이 산재하여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었는데, 은대에는 이 세계를 사극(四極)이라고 하였다. 사극(四極)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아(爾雅)』 「석지(釋地)」주에 보면 “皆四方極遠之國”이라고 하여 ‘사방의 아주 멀리 있는 국(國)’으로 해석하고 있다.³³⁾ 그리고 영국의 Paul Wheatly는 이 사극을 ‘The Pivot of the Four Quarters’로 해석하고 ‘상읍을 중심한 사방의 국(國)’³⁴⁾들로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천읍 또는 중방이었던 상읍을 중심으로 사방의 방·읍·국이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었던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극은 수도 상읍을 중심한 은 제국의 정치·군사·문화적 영역을 말하고 있다.

사실 천읍이었던 상읍은 왕도대읍(王都大邑)이었다. 주변에 수많은 속읍(屬邑)을 거느리고 있었고 은 왕조의 정치·군사적 중심지였고 경제적 교류의 중심지였으며 세계 최고의 청동기 문화가 발달하였던 문화중심지였다. 이런 점에서 상읍을 수도로 한 은 왕조는 동아시아 유일의 체계적인 국가였으며 그 문화는 바로 동아시아 유일의 선진문화였다. 이런 점에서 은 왕조는 정치·군사적으로는 하나의 세속적 국가이면서 이념적으로는 정문을 통해 계시받은 신의를 지상에서 실천하는 신의 대리자 은왕이 통치하는 유일한 세계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주 초기에는 세계개념에 상응하는 용어로 사방(四方)·사국(四國)이 사용되고 있었다. 사방과 사국의 의미를 보면 주방(周邦)을 중심으로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대소의 성읍국가들을 지칭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다방(多方)의 뜻이었다고 할 수 있다.³⁵⁾ 그런데 세계개념의 사방·

32) 李成珪, 「戰國時代 統一論의 形成과 背景」, 『東洋史研究』, 합집, 1975, p. 84.

33) 『爾雅』, 「釋地」, 3:1.

34) Paul Wheatley, *The Pivot of The Four Quarters*, Edinburgh: University of Edinburgh Press, p. 84.

35) 金翰奎, 『中國的世界秩序研究』, 서울: 潮閣, 1982, p. 13.

사국의 용어가 천하(天下)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서주시대의 문헌에 ‘천하’가 세계개념에 상응하는 의미로 사용된 예를 보면 『상서』의 「소고편(召誥編)」에 1회, 「입정편(立政編)」에서 1회, 『시경』의 「대아(大雅)」·「황의(皇矣)」에 각기 1회씩 나타나고 있고 「금문(金文)」에서도 보이고 있다. 세계개념의 의미로 ‘천하’가 주대 문헌에서 사용된 빈도는 춘추전국시대에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나 『상서』 「소고편」은 가장 오래되고 또 믿을 수 있는 자료이고 또 사료가치가 가장 높은 「금문」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보아서 주대에 ‘천하’가 세계개념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³⁶⁾ 그러면 주대에 새로이 출현한 천하의 개념과 내용 그리고 성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경』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상제께서 문왕에게 말하기를 이리도 발호하지 말게 하고 저리도 탐람히 굴지 말게 하되 먼저 송사의 시비를 밝히라. 밀수국 사람들은 불공하게도 큰 나라 주의 명을 거부하고 완국을 치려 공(共)으로 몰려가니 왕께서는 크게 노하시고 군대를 정비하시어 가는 적병을 막으시다. 이렇듯 주의 복을 두터이 하사 천하의 기대에 대답하시었다.³⁷⁾

위 글은 주 왕조 개국 이전의 대왕(大王), 대백(大伯), 왕계(王季)의 덕을 칭송하고 창(昌: 후의 문왕)의 업적을 서술하고 있는 시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천명을 암시하는 ‘상제가 창에게 말했다’는 전제하에서 밀(密)·완(阮)·공(共)·주(周)·대방(大邦)·천하(天下) 등의 용어가 나열되어 있다.

주는 개국 이전의 창(昌)시에 40여 국의 복속을 받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밀·완·공 등은 당시 주에 복속하고 있던 성읍국가

36) 白川靜, 『金文의 世界』, 東京: 1973, 제3장 참조. 大孟鼎에 있는 天下의 용어를 근거로 周代 특히 康王시기에 세계개념의 의미로 ‘천하’ 용어가 사용되고 天下觀이 성립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37) 帝謂文王 無然畔援 無然歆羨 誕先 登于岸 密人不恭 敢距大邦 侵阮徂共 王赫 斯怒 爰整其旅 以按徂旅 以篤于周祜 以對于天下(『詩經』, (大雅) 文王之什·皇矣).

중의 일부였다. 따라서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천하의 의미는 이 같은 성읍국가들을 지칭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천하’는 다수의 성읍국가들을 의미하고 있는 사방(四方)·사국(四國)의 뜻과 유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을 보자

왕께서 덕의 으뜸에 계시면 낮은 백성들이 이에 법을 지킬 것이며 천하에 쓰면 왕께서 빛나실 것입니다.³⁸⁾

이 문장은 소공(召公)이 나이 어린 성왕(成王)에게 진언하였던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변 성읍국가들로 구성된 ‘사국’ ‘사방’에 관한 언급은 없고 소민(小民)들 즉 일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천하’가 언급되고 있다. 같은 책 「입정편(立政編)」을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문왕의 자손이신 젊은 왕이여 여러 송사의 판단에 잘못이 없도록 하고 오로지 고을을 다스리는 자에게 맡기도록 하십시오. 군비를 정비하여 우임금의 발자취를 따르고 널리 천하에 행하여 해외에 이르기까지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도록 하고 밝은 빛을 뚜렷하게 비치여 무왕의 큰 공을 발양하십시오.³⁹⁾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천하’와 ‘해표(海表)’가 대비되어 나오고 있다. 여기에서 ‘천하’의 의미는 물론 주왕이 지배하는 정치·군사적 영역을 말하고 있다. 주(注)에 의하면 ‘해표(海表)’는 사이(四裔)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천하’는 주 제후국을 포함한 주왕의 봉건적 통치영역을 말하고 해표는 주왕 통치영역 밖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화(華)·이(夷)의 세계가 의식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을 보자

38) 『尚書注疏及補正』, 15: 30b. 其惟王位在德元 小民乃惟刑 用于天下 越王顯.

39) 위 책, 17: 14a. 今文子文孫 孺子王矣 其勿誤于庶獄 惟有司之牧夫 其克詰爾戎兵 以陟禹之迹 方行天下至于海表 罔有不服 以勳文王之耿光 以揚武王之夫烈.

빛나도다 우리 주여 그 높은 산에 올라 낮은 산과 높은 산 그리고 모든 강에 제사 드리고 넓은 하늘 아래의 사방을 함께 찬양하시니 이것은 바로 주의 명(命)이다.⁴⁰⁾

이 글은 창이 작고하고 아들 무왕(武王)이 은 왕조를 멸하고 주 왕조를 개국한 뒤에 제후국을 순행하면서 사악(四嶽)의 신과 하신(河神)에게 제사를 지냈던 사실을 노래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사국·사방으로 대표되는 주변 대소의 성읍국가들의 언급은 없고 대신 '높고 낮은 모든 산 그리고 많은 강'을 포함하고 있는 '넓은 하늘 아래(敷天之下)'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천하의 의미는 주왕의 통치영역뿐만 아니라 사예(四裔) 지역까지 포함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넓은 하늘 아래에 왕의 땅이 아님이 없고 온땅 끝까지에 왕의 신하 아님이 없다.⁴¹⁾

여기에서 '敷天之下'의 뜻을 보면 '넓은 하늘 아래의 땅, 바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망라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하의 범주가 주변 성읍국가 또는 주왕 통치영역의 차원을 넘어서 사예(四裔)지역까지 포함한 '하늘 아래의 모든 것(All under Heaven)'을 포함하고 또 주왕의 왕신(王臣)·왕토(王土)로 설정하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천하는 주왕이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정치·군사적 영역을 말하고 있지만 이념적으로는 하늘 아래의 모든 땅과 백성 그리고 화·이를 망라한 세계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주왕은 정치·군사적으로는 한정된 영역을 통치하는 세속적 지배자였지만 이념적으로는 천명을 받아서 세계 전체를 통치하는 신성한 그리고 유일무이한 통치자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40) 위 책, 於皇時 周陟其高山 曠山喬嶽 允猶翕河 敷天之下 今時之對 時周之命.

41) 『毛詩正義』, 臺北: 中華書局, 13-1: 116, 溥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賓 莫非王臣.

천명사상을 배경으로 하나의 세계관(An Idea of One World)이 수립되고 천(天)-천명(天命)-천자(天子)-천하(天下)의 등식으로 구성된 주대 통치사상이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⁴²⁾ 다시 말하면 은 왕조의 정치·군사적 통치영역은 한정되어 있었지만 은왕은 신의 대리자였기 때문에 사극(四極)의 통치자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왕조의 통치영역은 한정되어 있었지만 주왕은 천명의 봉행자였고 하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념적으로는 화·이를 망라한 천하의 통치자였다고 할 수 있다.

4. 유학경전(經典) 속의 세계관과 화(華)·이(夷)

중국 고대 문헌에 의하면 천하는 9주(九州)·5복(五服)·6복(六服) 또는 9복(九服) 등의 질서정연한 행정구역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출현한 것이 9주설이다. 9주설에 관한 기록은 『상서(尙書)』를 비롯하여 『주례(周禮)』·『여씨춘추(呂氏春秋)』·『묵자(墨子)』·『장자(莊子)』·『사기(史記)』 등의 자료에 모두 언급되고 있는데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그리고 명칭도 9복(九服; 周禮 夏官)·9기(九畿; 國語 齊語)·9토(九土; 國語 魯語上)·9국(九國; 禮記 文王世子)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구주(九州)가 9개의 행정구역이었다는 사실은 모두 일치하고 있다.

9주설에 관한 제일 오래된 기록은 『상서』 「요전(堯典) 우공편(禹貢編)」이다. 이 「우공편」에 보면 우(禹)가 순(舜)임금으로부터 황하의 치수(治水) 명령을 받아 치수에 착수한 지 13년만에 성공하여 황하의 범람을 막고 마침내 천하를 9주(九州)로 나누고 공납제(貢納制)를 실시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42) 李春植, 『事大主義』, 서울: 교보문고, 1998, pp. 119~120.

우(禹)는 땅을 9주로 나누어 높은 산과 큰 강으로 경계를 정하였다. … 기주(冀州) … 부세는 1등에다 2등이 섞였다. 연주(兗州)는 … 부세가 9등이었다. … 공물은 칠과 생사였다. 청주(淸州)는 … 부세가 4등이었으며 공물은 소금과 갈포였으며 여러 종류의 해산물이었다. 서주(徐州) … 부세는 중중이었는데 공물은 5색의 흙 … 5색의 핑털이었다. 양주(楊州) … 부세는 하의 상 등급이었고 공물은 금, 은, 동의 3가지 금속 … 아름다운 옥, 돌, 대나무 등이었다. 형주(荊州) … 부세는 3등이었으며 공물은 새깃, 소 꼬리털, 상아, 가죽이었다. 예주(豫州) … 부세는 상중의 상이었다. 공물은 칠, 모시, 갈포, 옷감 등이었다. 양주(梁州)는 … 부세는 하중하하였으며 공물은 옥, 철, 은, 강철 등이었다. 웅주(雍州) … 부세는 중하였고 공물은 옥과 돌이었다.⁴³⁾

이 기록에 의하면 당시 9주는 기주(冀州)·연주(兗州)·청주(淸州)·서주(徐州)·양주(揚州)·형주(荊州)·예주(豫州)·량주(梁州)·웅주(雍州)로 편성되어 있고 각 주는 지역에 따라 특산물을 공납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다음 『상서』 「우서(虞書) 익직(益稷)」에는 5복(五服)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이 5복 제도는 순(舜)임금 시대에 시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보면

5복을 이루어 오천 리에 이르렀고 12 주에 주장인 사(師) 12명을 두었습니다.⁴⁴⁾

의 기록이 있다. 「주소(注疏)」에 의하면 이 5복은 전복·후복·수복·요복·황복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우(禹)임금도 오복제도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상서』 「우공편」을 보면 9주에 대한 지리설명이 있는 뒤에 바로 5복제도에 관한 기록이 있다.

5복의 제도를 정하여 경사로부터 사방 5백 리 이내의 지역은 전복(甸服)으로

43) 『尙書注疏及補正』, 6: 1a-7b, 禹別九州 … 冀州 … 厥賦 惟上上錯 兗州 … 厥賦 貞 … 厥貢 漆絲 徐州 … 厥賦 中中 厥貢 惟土五色 羽畎夏翟 荊州 … 厥賦 上下 厥貢 羽毛齒革 豫州 … 厥賦 錯上中 厥貢 漆枲絲紵 梁州 … 厥賦 下中 三錯 厥貢 璆鐵銀鏤磬 … 雍州 … 厥中下 厥貢 惟球琳琅玕.

44) 위 책, 27b~28a, 弼成五服 至于五千 州十有二師.

하고 1백 리 안에서는 곡식을 베어 조세로 바치게 하고 2백 리 안에서는 이삭을 따서 바치게 하고 5백 리 안에서는 백미를 바치게 하였다. 전북지역 밖으로 사방 5백 리는 후국(侯國)으로 첫째 1백 리 안은 공경의 식읍으로 하고 다음 2백 리 안은 남방(男邦)으로 하였으며 그 다음 3백 리 안은 제후의 나라로 하였다. 후북 밖의 사방 오백 리는 수복(綏服)이라 하였다. 처음 3백리 안은 문교를 펴서 풍속을 바로잡고 그 나머지 2백 리의 이(夷)지역에는 무예를 일으켜 방위임무를 맡게 하였다. 후북지역 밖의 사방 5백 리는 요복(要服)지역이었다. 첫째 3백 리 안은 오랑캐(夷)들이 살았고 나머지 2백리는 죄인들을 귀양보내는 곳이었다. 요복지역 밖으로 사방 5백리는 황복(荒服)이었다. 첫째 3백 리 안은 오랑캐(蠻)들이 살았고 나머지 2백리 땅은 중죄인의 유배지였다.⁴⁵⁾

위 문장에 의하면 우임금이 시행한 5복제도는 순임금 때와 마찬가지로 전복·후복·수복·요복·황복으로 조직되어 있고 이 중에서 요복과 황복은 오랑캐의 이(夷)와 만(蠻)으로 구성되었는데 이것은 천하가 제하의 전복·후복·수복과 이적의 이(夷)와 만(蠻)의 지역으로 조직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또 『순자(荀子)』 「정론편」을 보면

봉내는 전복, 봉외는 후복, 위복·빈복·만이는 요복, 음적은 황복이다.⁴⁶⁾

의 글이 있다. 여기에서 빈복은 우공에서의 수복을 말하고 있다. 순자(荀子) 역시 천하를 5복으로 나누었는데 이 중에서 전복·후복·빈복의 제하 제후국과 요복·황복의 이적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9복(九服)에 대해서 살펴보면 『주례』 「하관(夏官) 직방씨(職方氏)」에는 9복으로 되어 있고 같은 책 「대사마(大司馬)편」을 보면 구기(九畿)로 되어 있다. 그러나 소(疏)에서는 같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우

45) 위 책, 6: 8a,b, 五百里甸服 百里采 二百里男邦 三百里 諸侯 五百里綏服 三百里 揆文教 二百里 舊武衛 五百里要服 三百里夷 二百里蔡 五百里荒服 三百里蠻 二百里流 東漸于海 西被于流沙 朔南敎 聲敎 訖于四海 禹錫玄圭 告二成功.

46) 『荀子』, 封內甸服 封外侯服 侯衛賓服 蠻夷要服 戎狄荒服.

선 9복(九服)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

구복의 방국을 나누어 보면 사방 천리 지역을 왕기라 하고 그 외 사방 오백리 지역을 후복, 그 외 사방 오백리 지역을 전복, 또 그 외 사방 오백리 지역을 남북, 또 그 외 사방 오백리 지역을 채복, 또 그 외 사방 오백리 지역을 위복, 또 그 외 사방 오백리 지역을 만복, 또 그 외 사방 오백리 지역을 이복, 또 그 외 사방 오백리 지역을 진복, 또 그 외 사방 오백리 지역을 번복이라고 하였다.⁴⁷⁾

여기에서 천하는 9복으로 조직되었다. 이 중에서 후복·전복·남북·채복·위복은 제하 제후국이고 만복·이복·번복은 이적국이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하는 제하세계를 중심으로 화·이의 세계로 구성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다음 『주례』 「추관(秋官) 사구(司寇) 하」에 보면

방기는 천리이다. 그 외 사방 오백리 지역은 후복이라고 하는데 일년에 한번 조근하고 사물(祀物)을 공납한다. 그 외 사방 오백리 지역은 전복이라고 하는데 2년에 한번 조근하고 빈물(贖物)을 공납한다. 그 외 사방 오백리 지역은 남북이라고 하는데 3년에 한번 조근하고 기물(器物)을 공납한다. 또 그 외 사방 오백리 지역은 채복이라고 하는데 4년에 한번 조근하고 복물(服物)을 공납한다. 또 그 외 사방 오백리 지역은 위복이라고 하는데 5년에 한번 조근하고 임물(林物)을 공납한다. 또 그 외 사방 오백리 지역은 요복이라고 하는데 6년에 한번 조근하고 화물(貨物)을 공납한다. 구주 밖은 번국이라고 하는데 일생에 한번 조근하고 각기 귀중한 바를 가져왔다.⁴⁸⁾

47) 『周禮注疏及補正』, 33: 14a, 乃辨九服之邦國 方千里曰 王畿 其外方五百里曰 侯服 又其外方五百里曰 甸服 又其外方五百里曰 男服 又其外方五百里曰 采服 右其外方五百里曰 衛服 又其外方五百里曰 蠻服 又其外方五百里曰 夷服 又其外方五百里曰 鎮服 又其外方五百里曰 藩服.

48) 위 책, 37: 23b~24a, 邦畿千里 其外方五百里 謂之侯服 歲壹見 其貢祀物 又其外方五百里 謂之甸服 二歲壹見 其貢贖物 又其外方五百里 謂之男服 三歲壹見 其貢器物 又其外方五百里 謂之采服 四歲壹見 其貢服物 又其外方五百里 謂之衛服 五歲壹見 其貢林物 又其外方五百里 謂之要服 六歲壹見 其貢貨物 九州之外 謂之藩國 歲壹見 各以其所貢實爲等.

의 기사가 있다. 여기에서 천하는 9복으로 조직되었는데 이 중에서 후복·전복·남복·채복·위복·요복의 6복을 구주로 간주하고 6복 이외의 지역을 번국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번국(藩國)은 이적지역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9복의 제후들은 화·이를 막론하고 각자의 지위의 고하, 지리의 원근에 따라 주왕에게 조공하였으며 번국은 원격지에 있기 때문에 일생에 조공을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자료에 따라서 내용은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천하는 9주, 5복, 9복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9주는 아홉 주로 편성되었는데 각 주는 천자에게 조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5복제도는 5개의 복(服)으로 나뉘었는데 후복·전복·수복은 제하 제후국으로 그리고 요복·황복은 이적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9복은 천하를 9복으로 더 세분했는데 이 중에서 후복·전복·남복·채복·위복·만복은 제하 제후국 그리고 이복·진복·번복은 만이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5복, 9복의 모든 제후는 이·하를 불문하고 작위의 고하, 거리의 원근에 따라 중국 천자에게 조공을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천명을 받은 중국 천자를 정점으로 9주 또는 5복, 9복 등의 봉건제도를 통치근간으로 그리고 화·이를 망라한 천하일국(天下一國)의 봉건적 세계국가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 같은 9주·5복·9복제도 등이 출현하였던 시대를 살펴보면 대개 전국시대로 간주된다. 9주·5복·9복 등의 기록을 담고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상서』 「우공편」은 대체로 춘추말기 전국초기에 편찬된 것 같고 『순자』는 전국말기 그리고 『주례』와 『예기』 역시 전국시대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전국시대에 전개된 전국칠웅(戰國七雄)간의 치열한 전쟁도 사실상 통일전의 양상으로 변모되고 있었으며 사·농·공·상으로 구성된 사민(四民)사회체제는 이미 각국에 만연되어 있었으며 상인들의 경제적 활동은 각국의 통치영역을 넘어서 전중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었다.

또 각국에서 학술과 사상의 발달은 상호간의 접촉과 교류를 촉진하였으므로 각국간에 급속도로 확산되어 문화통일까지 이루게 되었다. 특히 이 중에서 춘추공양학파는 이미 춘추시대부터 제하세계는 물론 주변의 이적까지 포함한 천하대통일사상을 내세우고 있었으며 전국시대의 사상가들도 천하통일의 필연성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전국시대의 중국은 비록 정치·군사적으로는 장기간의 분열과 대립 속에 있었지만 사회·경제적으로는 하나의 통일체제로 일원화되어 가고 있었으며 문화적으로도 이미 통합되어 가고 있었다. 따라서 천하통일을 염원하는 사회적 민심, 경제적 조건 그리고 각국 군주의 정치적 욕구와 환경이 전국시대의 사상가들 특히 유학사상가들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주례』·『상서』·『순자』·『예기』 등의 유학경전 속에 이 같은 천하통일사상이 반영되어 마침내 중국천자를 정점으로 9주, 5복, 9복 등의 봉건제도를 통치근간으로 그리고 이·하를 망라한 천하일국의 봉건적 세계국가 수립의 정치적 이념이 탄생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중화세계질서 수립의 이념은 은·주시대의 특정 신의 카리스마에 의탁한 통치이념과 통치영역에 기본적인 세계관의 형성 그리고 서주지대 주 천자를 정점으로 한 봉건제도를 결합한 유학사상가들의 정치적 이념 속에서 탄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맺는 말

중화세계질서 수립의 이념은 이미 은·주시대에 태동되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은 왕조를 살펴보면 은 왕조는 당시 동아시아 최초의 체계적인 국가였으며 은 문화는 동아시아 유일의 선진문화였다. 그리고 은왕은

이 같은 은 제국을 통치하는 정치·군사적 통치자였다. 이와 동시에 은 왕은 정문을 통해 신의(神意)를 지상에서 실천하는 신의 대리자였으므로 은왕의 통치는 신성하고 유일무이했으며 그의 통치영역은 당연히 전세계였다.

은대의 세계는 사극(四極)이었다. 이 사극의 범주는 은왕이 주재하고 있던 천읍·상읍과 주변의 방·읍·국의 성읍들로 구성되었는데 이것은 은왕의 정치·군사적 지배영역이 바로 은대의 세계였음을 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은왕은 은 왕조의 정치·군사적 통치자이면서 동시에 신의를 지상에서 실천하는 신의 대리자로서 세계를 지배하는 신성적 통치자였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특정 신의 카리스마에 의탁한 은대의 통치이념은 다음의 주 왕조에 계승되었다.

은 왕조를 계승한 주 왕조 역시 동아시아 유일의 제국이었고 주 문화는 동아시아 유일의 선진문화였다. 그리고 주왕은 이 같은 주 왕조를 통치하는 정치·군사적 통치자였으며 동시에 하늘로부터 받은 천명을 천하에 실천하는 천명의 봉행자였다. 그러므로 주왕은 한정된 영역을 지배하는 정치·군사적 통치자였으나 이념적으로는 천명을 받은 천명의 봉행자였기 때문에 그의 통치영역은 바로 천하였다. 여기에서 주왕을 정점으로 한 천하일국(天下—國)의 세계관이 수립되었으며 천(天)·천명(天命)·천자(天子)·천하(天下)의 통치이념이 성립되었다.

전국시대에는 천하의 용어와 함께 9주, 5복, 9복 등의 용어가 출현하였다. 이 9주, 5복, 9복의 내용을 보면 천하는 아홉 개의 주 또는 다섯 개, 아홉 개의 제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5복과 9복의 변방지역은 이적·만이의 제후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변의 이적·만이들도 주왕의 통치하에 수용된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 모든 주(州)와 복(服)의 제후는 화·이를 망라하여 주 천자에게 조공을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 천자를 정점으로 그리고 화·이를 포함한 하나의 봉건적 세계국가 수립의 이념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봉건적 세계국가상은 은·주시대 특정 신의 카리스마에 의탁한 통치이념과 세계관 그리고 서주지대 봉건제도의 결합위에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상서』, 『주례』, 『순자』, 『예기』 등의 유학경전 속에 묘사되어 있는 9주, 5복 또는 9복 등의 체도를 기반으로 수립된 국가상 내지 세계관은 중국천자를 정점으로 그리고 화·이를 망라한 제후국으로 구성된 천하일국(天下—國)의 봉건적 세계국가상이었는데 이것은 전국시대 유학사상가들의 이념적 소산으로 생각된다. 또 이 같은 봉건적 세계국가상은 후대 중국황제를 정점으로 중국을 내번으로 주변국을 외번으로 수립되었던 중화세계질서의 골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진한시대 이후 정치·군사적으로 수차 실천되었던 중화세계질서 수립은 이 같은 유학 정치사상의 정치·군사적 실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